

공감·연대 실천하는 시민으로
박래훈 고흥포도중학교 교장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나와 다른 정치적 입장을 적대시하며 충돌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전쟁을 통해 경험했다. 차기 정부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공감과 연대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장애인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
배영준 광주 장애인 인권 활동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늘 부족했고 우선순위에 밀려났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알맹이가 없는 정책들이 많았고 현장에 필요한 점을 담아내지 못했다. 앞으로의 정부에서는 약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을 세워 장애인들도 한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 수 있는 세상이길 바란다.

지역기업 맞춤 지원하는 정부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광주지역에는트럼프발 상호 관세 문제, 군 공항 통합 이전, 위니아 사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역 경제계는 정부와 협력해 현안 해결에 힘쓰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차기 정부는 지역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영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

임대료·식자재 가격 안정 희망
김향원 루키초밥 대표



긴 침체의 터널 속에서도 요식업계는 묵묵히 버텨내고 있다.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 가격이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며 숨통이 막힌다. 차기 정부는 임대료와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공정한 배달 플랫폼 운영, 식자재 가격 안정, 쉬운 세무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서주길 희망한다.

‘보통의 시민’ 삶 개선되기를
남진희 취업준비생



취준생 입장에서 마땅한 양질의 일자리 없이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하고 ‘쉬웠음’이라는 통계로 많은 청년의 삶이 일반화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미래 정부는 서로 입장이 달라도 합치와 대화의 정치를 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큰 비중을 차지해 ‘보통의 시민’들의 삶이 개선되길 바란다.

尹 ‘불소추특권’ 상실...공천개입의혹 등 수사 속도 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흘째인 6일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명태균 본격 수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불소추특권’을 상실함에 따라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재수사 여부 결론 시점도 빨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3억 7520만원의 비용은 모두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일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왔

다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기소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씨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공천 개입 의심 정황이 짙게 드러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수사라는 현실적 제약이 사라진 만큼 조만간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서두르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

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고검이 검토 중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재수사 여부 결론 시점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해병대 채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직권남용·범인도피)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병대 사건 수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파면 승복 없는尹, 지지자에 결집 메시지만

민주당 “관저 정치로 대한민국 흔들려 해”...논평 통해 비판

한정사상 두번째로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승복의 메시지는 없었다.
12·3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성이나 대국민 사과는 없고 대부분 지지자를 위로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어려운 결을 지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탄핵 반핵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자신을 지지했던 극우 세력의 집결을 의도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월 13일 저녁, 정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첫 합성을 기억한다”면서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자유와 주권 수호의 일념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앞서 탄핵결정이 나온 지난 4일에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놨다.
파면된 직후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만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hb@

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의원, 비상계엄 가담자 처벌 특별법 발의

12·3 비상계엄 주도자뿐 아니라 가담·방조·선동에 참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엄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겼다.
위원회에서는 헌법 행위 진상규명과 허위사실 유포 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 재발 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1년으로 국

회 의결이 있으면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과 처벌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계엄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거리연설 등으로 반헌법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Farm 나누어드림 자원봉사자 모집

Farm 나누어드림이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고 수확한 농산물 일부를 기부받아 전남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신선식품 제공 및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사업입니다.

모집대상

- 농촌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 (대학교, 기업, 지역주민 등)
- 동아리 및 대학생 등 (7명 이상)

활동순서

1. 능가 및 봉사자 신청
2. 매칭 및 일정 조율
3. 봉사활동 실시 (활동 전 교육 및 안내사항 전달)
4. 수확물품 기부

참여혜택

- 활동물품 (장갑, 수건 등) 지원
- 자원봉사 활동 시 식사 및 간식제공
- VMS를 통한 봉사활동 시간관리
- 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 가입

신청문의 전남사회복지협의회 T. 061-283-8477

와원농업 이따옴김치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전남광역푸드뱅크